



본종 사회복지법인 설립

불교종단 가운데 세 번째로 설립,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인가

정통불교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본 종단에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안효강 법장원장)이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 지난 해 8월 14일 전국 승직자가 참여하는 승단총회에서 복지법인의 설

립을 결의한 이후 근 1년에 걸쳐 추진한 성과이다. 종단은 법인설립을 계기로 그간 벌여 왔던 다양한 복지관련사업을 보다 체계적, 총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의 준비에 들어갔다.

본종은 27년의 짧은 종단사를 갖고

있으나 창조 무렵부터 종조이신 원정(苑淨)대종사께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이념으로 삼고 사회계몽과 사회복지의 구현을 주창하신 바 있고, 이에 따라 10년 전 학교법인 대동학원을 설립, 종립학교로 부산 동해중학교를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괴산에 대규모 수련원을 건립 매년 하계 청소년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오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의 특별분과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총지화 불교총지종 총리원장)와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안효강 불교총지종 법장원장)를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97년 말부터 몰아닥친 경제난국을 맞아 98년 1월 21일부터 실직자를 위한 지원시설로서 '오투기모입터'를 설치 운영하여 불교계 안팎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런 성과로 사회복지법인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98년 12월에는 강남구로부터 강남구 최초의 노인복지전문시설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를 수탁받았으

며 올 3월부터 정식업무를 개시한 이 시설은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상당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설립 당시의 법인 기본재산으로 현금 5억원을 출연, 종단 차원에서 추진했던 복지관련사업의 이관에 따른 사업비 등은 추가 지원과 후원,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와 연구,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위탁 운영, 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각종 지원 사업에 정진할 것이며 이미 종단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한층 발전 시켜 새로운 2천년대 불교의 사회화, 사회의 불교화에 밝은 이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서는 안효강님을 비롯, 민문기님, 이기식님, 김점순님, 신순덕님, 이무형님, 서진업님, 권승자님, 이용원님이며 감사에는 최봉해님, 이수성님이 선임되었다.



▲ 복지법인 설립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사진은 지난 2월 9일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개원 장면

다시듣는 종조법설

밀교란 무엇인가?



▲ 총기 7년 10월 17일 '아사리 가사 봉대식'에서 가사를 봉대하시는 원정 대종사

밀교의 의식

밀교는 의식(儀式)을 주로 한다. 의식이란 특정한 시기에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의식(儀式)이요 제전(祭典)이라 할 수 있다.

의식은 심비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다. 또 특정한 장소가 일반의 장소와 구별되는 것도 종교의 특색이다. (예, 도량, 불단 등) 또 용구, 언어, 행동 등이 구별되어 일상생활과 달라서 시간, 공간, 물체, 동작, 언어 등이 성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대하여 일상생활을 세속적이라고 하고 순불교적인 생활을 출세간적이라고 한다.

종교는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비밀적인 부분이 있다. 수행의 깊이에 따라 그 비밀을 수습 또는 체득하는 것이 본령(本領)으로 되어 있다. 여타의 종교 보다 불교에서 비밀(秘法)이 많고 그 대표적 것이 밀교라고 하겠다.

반면 성질이 밀교 속에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본질, 즉 제3의 특질이 의례(儀禮)이다. 심비적 불(佛)의 세계를 관망하는 것만으로는 인간 구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표현된 상징을 해독하여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에게 재기시키는 것, 환연하면 상징으로 표현된 불의 체험을 상징을 통하여 행자가 추체험(追體驗)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밀교실천의 규정인 의례인 것이며, 이러한 의례는 밀교의 여러 가지 의식에 나타나고 있고, 경전에 방대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어린이·청소년 여름수련법회 다양하게 펼쳐진다

본종 수련원, 7월 26일~28일(청소년)
7월 29일~31일(어린이) 실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열렸던 어린이·학생 여름수련법회가 올해에도 본종 수련원(충북 괴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수련법회는 '중·고등학생법회'와 '어린이법회'로 구분되어 열렸던 법회가 '어린이(초등)·고등학생 법회'와 '중학생'법회로 조정되어 열린다. 연령의 현격한 차이에서 오는 행사프로그램의 불균형을 가능한 한 없앤다는 것이 조정의 큰 이유.

이에 따라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9회 여름 학생 수련법회'는 7월 26일부터 28일 까지 2박 3일간 실시되고, 연이어 초등학교 어린이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 5회 여름 어린이·청소년 법회'는 7월 29일부터

31일 까지 열리게 된다. 어린이와 고등학생을 공동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진행방식을 바꾸었기 때문. 고등학생들을 어린이 지도교사로 활용한다는 것이 조정 이유이다.

이번 양 법회의 큰 특징은 예전의 스파르타식 극기훈련을 배제하고 '대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호연지기를 배운다'는 것.

'학생수련법회'의 경우 '새천년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궁극적 사고의 견지', '화합단결의 정신 함양'을 목표로 '자연학습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다. '놀이마당'에서는 민속놀이, 족구, 골든벨, 기마전, 줄다리기 등이 펼쳐진다.

'어린이·청소년법회'는 '자연이 놀자, 환경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자



▲ 법회에서 청소년들은 호연지기를 배운다. 사진은 지난 해 수련법회의 '조별 연극발표회' 장면. 연과 함께 하는 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종 사원 뿐만 아니라 충북 괴산지역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본산 소재 서울 강남구 지역내의 소년소녀 가장을 초청할 예정이다.

하반기 49일불공 회향, 방생법회 봉행

지난 7월 16일 교구별·사원별로 일제히 실시

하반기 진호국가 49일 불공이 지난 7월 15일 회향되었다. 회향 불공을 마친 후 각 교구별 또는 사원별로 '49일 회향 방생법회'를 7월 16일 일제히 봉행했다. 서울·경인교구와 대구·경북교구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합동 방생법회를 가질 예정이며, 부산·경남교구와 충청·전라교구는 각 사원별로 실시한다.

이번 방생은 어류방생을 자제하고 교도소, 복지관 방문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인간방생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제9회 여름학생수련법회

■ 행사기간: 총기 28년 7월 26일~28일(2박 3일) ■ 장 소: 충북 괴산 수련장

■ 총기 28(1997)년 여름수련법회일정

일 자	시 간	교 육 내 용	교 육 장 소	비 고
7월 26일	~ 16:00	수련장 도착	운동장	
	16:00 ~ 16:30	입소식	운동장	총무부장
	16:30 ~ 19:00	만남의 장소	운동장	조편성, 숙소배정
	19:00 ~ 20:00	저녁공양		
	20:00 ~ 21:00	법회	서원당	
7월 27일	06:00 ~ 07:00	기상	운동장	세면 및 체조
	07:00 ~ 08:00	아침공양		
	08:00 ~ 08:30	법회	서원당	
	08:30 ~ 09:00	자연학습	송면주차장옆	민속놀이, 족구, 골든벨 등
	12:00 ~ 13:00	중식		
	~ 19:00	자유시간		물놀이
	19:00 ~ 20:00	저녁공양	수련장	
	20:00 ~ 20:30	법회	서원당	
	20:30 ~	총기 여름 밤 축제	놀이마당/축제마당	기마전, 줄다리기, 오작교건너기 등
	7월 28일	07:00 ~ 08:00	기상	운동장
08:00 ~ 09:00		법회	서원당	
09:00 ~ 10:00		아침공양		
10:00 ~ 12:00		강의	동산	법장원
12:00 ~ 13:00		퇴소식	운동장	주변정리
13:00 ~	중식			

■ 문의처 ■ 불교 총지종 총리원 전화(02)552-1080~3 / 팩스(02)552-1082

■ 접수처 ■ 불교 총지종 총리원 및 전국 각사원

제5회 어린이수련법회

■ 행사기간: 총기 28년 7월 26일~28일(2박 3일)

■ 장 소: 충북 괴산 수련장

■ 총기 28(1997)년 어린이수련법회일정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접수	일어나기	일어나기
입제	아침바람쐬기	아침바람쐬기
반배정	아침불공	찬불가 배우기
동무만들기	아침공양	아침불공
게임	놀이하나	아침공양
저녁공양	전래놀이 및 자연놀이	시상
저녁불공	점심공양	점심공양
찬불가	이동	회향
염주깨기	놀이2	
부처님나라로	자연놀이와 물놀이	
	간식	
	레크레이션	
	저녁공양	
	휴식	
	모듬별 장기자랑	
	별보기운동	
	부처님 나라로	

■ 문의처 ■ 불교 총지종 총리원 전화(02)552-1080~3 / 팩스(02)552-1082

■ 접수처 ■ 불교 총지종 총리원 및 전국 각사원

불교개설 7

근본불교의 교설 ③ - 팔정도(八正道)

정리 : 대현(법장원연구원)

팔정도란 팔성도지(八聖道支), 팔정도분(八正道分), 팔정법(八正法) 등으로 일컬어지는 실천 수행의 중요한 덕목을 여덟 가지로 나눈 것이다. 여덟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단수 형태로 불리는 것은 8개의 항목이 한 성도(聖道)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8개가 모두 협력함으로써 인격완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정견(正見)이나 최후의 정정(正定)에 있어서도 각 지(支)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의 일곱 항목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마지막의 정정(正定)이 그 작용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7항목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8정도는 4성제에 의해 진단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멸하고, 해탈의 도를 닦기 위해 욕락(欲樂)과 고행(苦行)의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가르침으로서 37조도 품 속에 포함되는 불교의 대표적인 실천수행도이다.

1) 정견(正見)

올바른 견해, 지혜의 완성에 필요한 바른 통찰로서, 즉 불교의 올바른 세계관·인생관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사성제, 연기, 중도에 관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정견(正見)이 바로 서야만 올바른 실천·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2) 정사유(正思惟)

올바른 사유. 올바른 사고방식,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생각이 정견으로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근본경전에 기록된 정사유의 해석은 노여워하는 마음·축이고자 하는 마음·세속적인

業)을 짓지 않아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타인을 올바르게 지도·계몽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고 복돋아 주거나, 성실한 말로 남을 대하거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 등이 올바른 언어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팔정도 - 불교 실천수행의 중요한 여덟가지 덕목

4성제에 의해 진단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멸하고, 해탈의 도를 닦기 위해 욕락(欲樂)과 고행(苦行)의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가르침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출가자에게 어울리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자애로운 마음·더러움을 떠난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사유하고 애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정어(正語)

올바른 언어행위.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사물의 특질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매우 부정확하고 진실을 왜곡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짓말, 욕설과 비방, 부정확한 목적을 위해 꾸며대는 말, 이간시키는 말, 중상이나 모략 등의 구업(口

4) 정업(正業)

올바른 행위. 신체적 행동으로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살생) 재물을 훔치거나(도둑) 부정한 행위(사유)를 삼가고, 애호·시여자선·성도덕을 지키는 등의 선행(善行)을 하는 청정한 삶을 말한다.

5) 정명(正命)

올바른 생활. 의·식·주를 법에 맞게 구하는 것으로 10선계(善戒)에 의한 생활이다. 다시 말해서, 생활수단을 바르게 하여 규칙적인 습관을 기르고

양심적인 윤리·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사회윤리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도 여기에 해당된다. 소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축생의 주문(呪文)이나 사주·관상 등 사된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다.

6) 정정진(正精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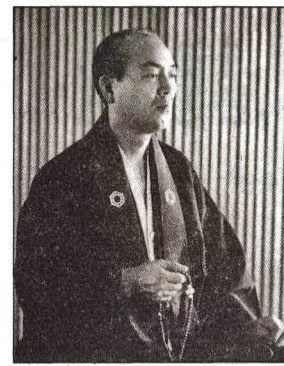
올바른 노력·수행. 불교의 이상실현을 위해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善)을 증강하고 악(惡)을 끊어 없애는 사정근(四正勤·四正斷)을 들 수 있다.

7) 정념(正念)

올바른 알아차림·살림·마음챙김이다. 념(念)은 지(止·사마타)로도 관(觀·위빠사나)으로도 갈 수 있다. 정념의 수행법으로서 사념처관(四念處觀)을 들 수가 있다. 4념처관은 자기 주위의 모든 것(身·受·心·法)이 부정(不淨)·고(苦)·무상(無常)·무아(無我)라고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지켜 보는 것이다.

8) 정정(正定)

올바른 선정을 말한다. 지(止)·관(觀)의 결과 정념(正念)의 삶이 지속되어서 삼매(Samadhi)에 들어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육바라미의 실천과 생활화 8

법공 (만보사 주교)

지금까지 '보시바라미'의 삼종시(三種施)중 첫 번째인 재시(財施)에 대해 말씀 드렸고 재시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총지중에서 행하고 있는 단시법(檀施法)으로 절량(切糧)희사·매일정시(定施)·수시(隨施)차시(差施)·10/1일 회사법 까지 말씀 드렸습니만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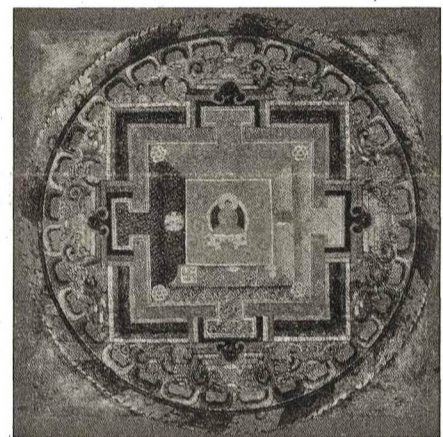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재시(財施)를 마무리하면서 원정 종조님의 법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조님께서 재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현시대는 물도시대(物道時代)라 하고 과거 인도시대(人道時代)에는 물질보다 예의·도덕·인정이 우선 되었지만 현시대는 물질과 도덕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물질이원(物心二元)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인과법으로 본다면 현실의 가난은 결코 우연이나 운수라거나 팔자 탓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바른 청담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과법은 탐할 만큼도 여섯남이 없는 만고불변의 철칙이나 실제로 현실 가운데 역력히 나타나 보이건만 어리석은 중생은 각자 자신이 어리석은 만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돈이나 음식이나 기타 어떤 것이든간에 배움을 받고 보면 반드시 값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 필연지사이고, 더디고 빠른 차이만 있을뿐 조만간 그 보답이 오게 마련인데도 탐심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 알고 뒤에 오는 과보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며 대가가 받기만을 좋아하고 주기는 싫어하며 들

탐심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복덕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거 50년대-60년대 이전에 견주면 우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인류의 생활이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물질적 풍요가 비교가 안 될만큼 향상되었고 또한 향상률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이점 그 원인과 처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종조님 말씀에 "중생은 탐심 때문에 맞살고 고통받는다. 탐심으로 인해 모든 죄를 짓게 됨으로 탐심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복덕이 된다." 고 하신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어오는 수입은 좋아라 하고 나가는 지출은 아까워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전편에 실한 10/1회사법을 보더라도 10/1회사란 수입의 90%를 내가 차지하고 겨우 10%를 은혜값으로 되돌리는 것인데(실은 나의 뿌리에 주는 거름과 같아 나의 유익이 되는데)도 대다수의사람들이 그리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정답은 탐심의 장애 때문이지요. 탐심이 무명이 되어 지혜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워 베풀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10/1회사를 하는 교도들도 수입이 적을 때는 10/1회사 액이 크지 않아 잘 하다가도 수입이 불어 10/1회사액의 단위가 커지면 그만 망설이게 되고 결국은 법대로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1만원의 10/1=1천원, 1백만원의 10/1=10만원) 안타깝게도 이는 90%불어난 수입은 보이지 않고 탐심 때문에 10%불어난 회사금액만 크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중생의 탐심이 이와 같이 유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 별존 만다라의 하나, 중존(中尊)이 석가모니불인 금강계 만다라이다.

서 넓은 의미로 자성만다라(自性曼荼羅), 관상만다라(觀相曼荼羅), 형상만다라(形像曼荼羅)로 나누기도 한다.

자성, 관상만다라는 내적(內的), 불가시적(不可視的) 측면을 지니고, 형상만다라는 외적(外的), 가시적(可視的)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외적 만다라는 바로 사만(四曼)의 만다라라 할 수 있고, 내적 만다라는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나타내는 만다라라 할 수 있다. 외적 만다라는 제 존상(諸尊像)의 집합도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만다라를 가리킨다. 한편 내적 만다라는 우리들의 개별적 인간 존재의 복잡성에 대하여 전체적 소우주를 하나의 통일체인 만다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만다라는 형태적인 면에서 종류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대, 삼, 법, 갈마라 약칭되는 4종 만다라이다.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대장계·금강계의 양부 양

계만다라, 대일여래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존상을 본존으로 삼고 있는 '별존만다라' 등이 있다. 결국 만다라는 신앙의 대상이자 관법의 대상으로서 불(佛)의 깨달음의 세계이며 동시에 중생이 증득해야 할 세계이다.

만다라의 종류

만다라는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4종만다라를 약하여 사만(四曼)이라 한다. 『금강정경』의 설에 따르면, 제존(諸尊)의 상호를 갖춘 모습, 또 이것을 도회(圖繪)하는 것을 대

의 본위(本位)에 써놓은 것을 법만다라(法曼荼羅)라 한다. 제존의 활동이나 상(相)을 각조(契造)하여 나타낸 것을 갈마만다라(曆曼荼羅)라 한다. 쉽게 표현한다면, 대만다라는 존상(尊像)의

「4종 만다라」가 일반적인 분류 —

- 대만다라, 삼매야만다라, 법만다라, 갈마만다라

만다라(大曼荼羅)라 하고, 제존의 삼매야, 곧 본서(本誓)를 나타내는 기장(器仗)·도검(刀劍) 등의 소지품을 의미하고 손에 인계를 맺는 것을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라 하며, 제존의 종자나 진언, 또 그 종자의 법자를 제존

만다라이며, 삼매야만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의 만다라이고, 법만다라는 문자의 만다라이며, 갈마만다라는 입체적 만다라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4종만다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또 달리 만다라를 분류하는데 있어



홍순지 with Tales Of Siri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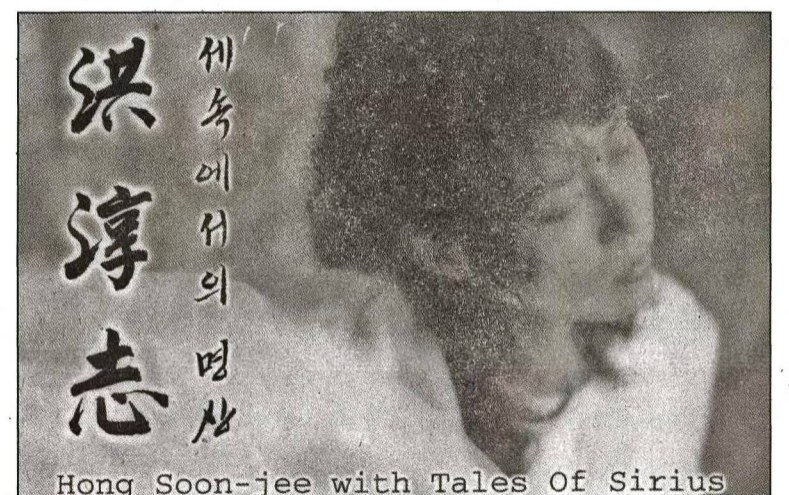
앞면

- 빈몸이 끊임없이/부용영관(1485~1571) 선시(03:07)
- 도량 의 백일홍/백영운 작사 (04:26)
- 문수사 /대감탄연(1070~1159) 선시(03:55)
- 산거 /나오혜근(1320~1376) 선시(02:53)
- 구름 흐르나 하늘은/편양언기 선시(1절)·백영운 작사(2절) (03:48)

뒷면

- 사바의 인연/백영운 작사(04:26)
- 노귀자/백영운 작사 (04:58)
- 청산은 나를 보고/나용혜근 선시 (03:22)
- 유가야 /정허휴경(1520~1604) 선시 (02:53)
- 자하문 (02:16)

가격 Tape 3,000원 / CD 10,000원



Hong Soon-je with Tales Of Sirius

신서사이저, 시퀀싱, 어쿠스틱기타 / 백영운
해금 / 김승택
가야금 / 정우진, 이현범
바이올린 / 채운영 · 비올라 / 이은정
엔지니어, 프로듀서 / 백영운
사진 / 노현해(mono studio)
녹음 / G STUDIO

Music Design and digital recording
G MEDIA tel.fax (0561)775-4888
http://user.chollian.net/~studiog
E-mail:studioG@cholli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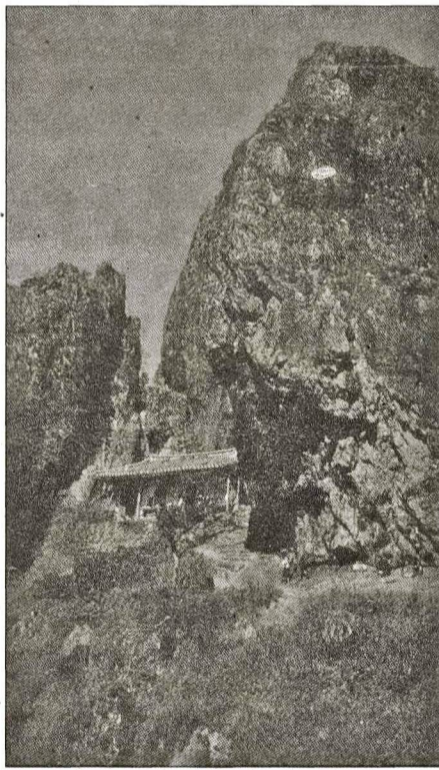
여행 테마 특집

여름탈출!

기차로 떠나는 '심신의 휴식'...

실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삶, 올 여름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다. 경제적 어려움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다. 더욱 바빠진 삶에서 조용히 되돌아보는 휴식의 시간마저도 없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마음과 몸마저 병들 수는 없다. IMF라 하여 정신마저 쇠약해질 수 없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알찬 여름휴가를 떠나보자. 대자연과 함께 호흡해보는 시간, 신록의 푸르름 만끽이나 우리의 정신을 푸르게 단장하자. 자연을 벗삼아 일상의 때와 잡념, 근심을 모두 벗어 던지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자. 많은 경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적은 경비로 떠날 수 있는 '기차여행'으로 오랜만에 자연의 상큼함을 느껴보자. 기차로 떠날 수 있는 여름휴가지를 몇몇 소개한다. 자료는 철도청의 기차여행 홈페이지에서 참고했다. (<http://www.korail.go.kr/train/index.html>)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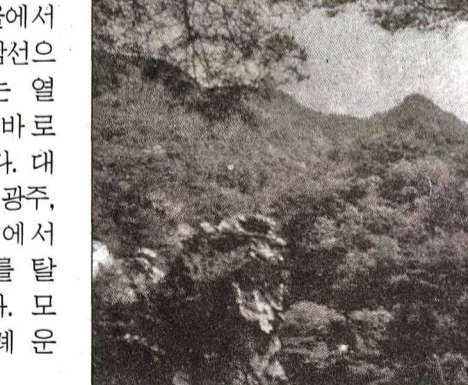
▲ 금오산은 등산코스도 유명하다.

남도창의 본고장, 남원! 낯선 고장을 찾아보는 설레임은 그것만으로도 더운 여름, 좋은 피서법이 될 법하다. 남원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의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유서깊은 명고이다. 6백년 세월동안 여러 차례 중수(重修)와 개축이 있었지만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정자와 누각들이 자리잡은 6,600여평의 경내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좋은 명상처라 할 수 있다. 남원역은 전라선으로, 전주와 순천 사이에 있다. 버스를 타고 전주나 순천에 와서 남원까지 열차를 타고 가는 것도 또다른 여행맛이 될 것 같다.

대둔산과 개태사역

호남선 서대전역과 논산역 사이에 있는 '개태사역'! 충남 논산시에 소재하고 있다. 개태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킨 뒤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찰이다. 개태사역 주변에는 은진미륵으로 유명한 관악사와 쌍계사, 견훤묘,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의 묘, 황화산성 등 명소가 많이 있다. 타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경부선 열차를 타고 대전역에 하차하여, 개태사로 가는 호남선 열차를 잡아 타면 된다.

서울에서는 호남선으로 가는 열차를 바로 타면 된다. 대전역과 광주, 목포역에서 통일호를 탈 수 있다. 모두 6차례 운행. 개태사가 있는 대둔산도 등산코스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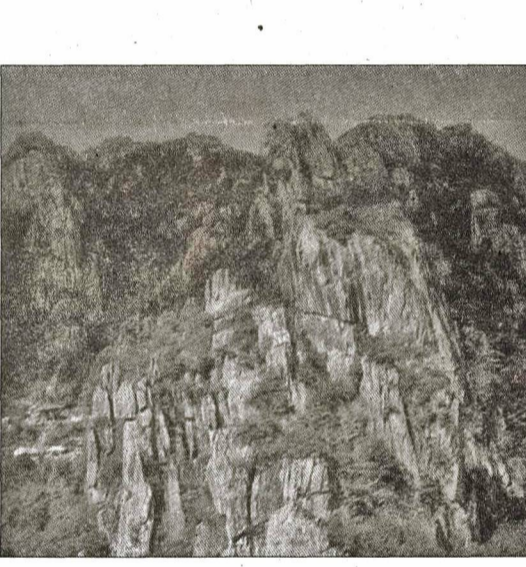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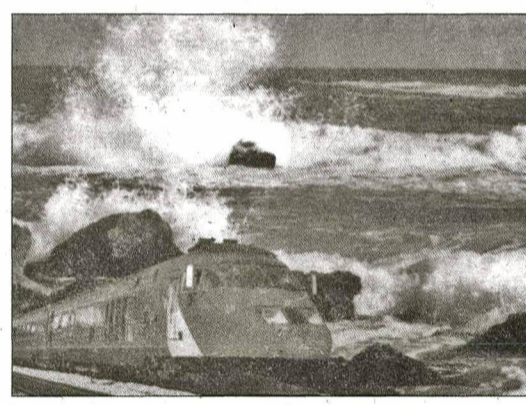
▲ 동두천시 북쪽에 위치한 소요산.

소요산과 동두천역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동두천에는 소요산, 한탄강 등 명소가 많아 서울 근교의 관광지로서 각광 받고 있다. 동두천에서 67기리정도 위치해 있는 소요산! 높게 치솟은 기암괴석, 가파른 절벽이 가슴 깊은 숙을 움츠들치게 한다.

경의선을 타고 동두천에서 내리면 소요산 입구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있다. 이 소요산에는 백운암과 백좌암이 산 구구에 위치해 있다.

테마가 있는 기차여행



▲ 대둔산의 절경

고수동굴, 손달산성과 단양역

중앙선을 타고 충북 단양역에 내리면 단양팔경의 경승지가 우리를 기다린다. 단양 지역에는 읍내 8~12기리범위안에 유명한 단양팔경이 모두 있다. 영춘면에는 온달산성이 고구려의 지상을 느끼게 한다. 매포읍 영천리의 촉백수림은 여름철 삼림욕으로도 그만. 대자연의 숨소리가 절로 들린다. 대강면 고거리의 고수동굴, 노동리의 노동동굴, 천동리의 단양천동굴 등 석회암 동굴을 볼 수 있다. 동굴 안의 찬바람이 등줄기에 느껴진다.

충북 단양으로 가는 관광코스행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중앙선의 열차를 타고 단양역으로 떠나 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하회마을의 안동역

안동은 하회마을로 유명하다. 풍천면 하회동의 하회마을은 예로부터 유림의 고장으로 향토문화의 중심지이며 옛조상의 얼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이 마을은 풍산 류씨가 대대로 살아왔던 전형적인 동족부락으로써 사대부가로부터 가락집(하층민집)에 이르기까지 130여호의 대소 고가들이 보

현목의 세상읽기

올해의 우란분절에는...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 실장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어머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히 점심을 드셨다. 소화기 능이 거의 다하신 탓에 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정도였다. 늘 그랬듯이 창가에 놓여진 의자에 어머님을 앉혀 드셨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만을 몰로러미 지켜보시길 삼년째였다.

어느 때인가, 그렇게 지켜보다가 문득 당신도 밖에 나가시겠다고 신발을 신겨 달라 하신 적이 있었다. 어머님 연졸의 동네분들이 창 아래 길에 나와 한참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에 깜빡 당신의 몸 상태를 잊으셨다. 그저 컵등으로 들고만 있는 자식에게 투정을 부리셨다.

"나, 나가야겠다. 신발 찾아줘라. 지팡이도 내놓고..."

이미 신체의 정상 기능을 잃은 탓에 제대로 발음은 안되지만 그 뜻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걷기는커녕 당신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분이였다. 엎고 내려가지 않으면 바깥은 그저 바깥에 불과했다.

점심을 드신 후 창가에 앉혀드렸으나 어쩔일인지 바깥을 쳐다보지 않으셨다. 대신, 밖으로 난 창과는 90도로 다른 방향에 있는 출입문 쪽만 초점없이 쳐다보고만 계셨다. 마치 그 문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이제 누가 그 문을 통해 들어올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당신은 보고 있었던 것일까.

"어머니, 거기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존재, 그 존재의 실체를 안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어머니의 통증을 그때부터였다. 배가 아프시다고 했다. 근래들어 찾아진 통증이었기에 처음에는 건성으로 들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해졌다. 문밖에 찾아온 존재는 어머니를 모시고 갈 손님이였다.

혹독한 통증은 무려 5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이승으로부터 떠나는 통과례는 그토록 심하게 어머니를 괴롭혔다. 마침 일요일이었기에 가까운데 사시는 고모님과 큰형님, 시집간 여동생, 아우들이 당신의 손자들 모두 모일 수 있었다. 모인 피붙이들은 눈물로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아야 했다. 누구라도 나눠줄 수 없는, 당신이 가져갈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고모님은 짧게 정의했다.

"마지막 정을 떠려는게다."

이승에 메인 정을 떠나는 뜻이었다. 당신에게 아직 남은 미련이 당신으로하여금 당신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는 손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일까.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만 کمی 휴식하세요. 그냥 편히 길 떠나세요."

늘 주무시고 일어나시던 당신의 방, 당신의 자리에서 이제 뜬 구름 한 조각같은 생각을 나누신다. 무심히 제철로 도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금강경 독송소리가 방안을 넘어 집 곳곳에 배인다. 바깥은 봄이었다.

어머님은 화장을 싫어하셨다.

"내가 이 다음에 죽더라도 화장은 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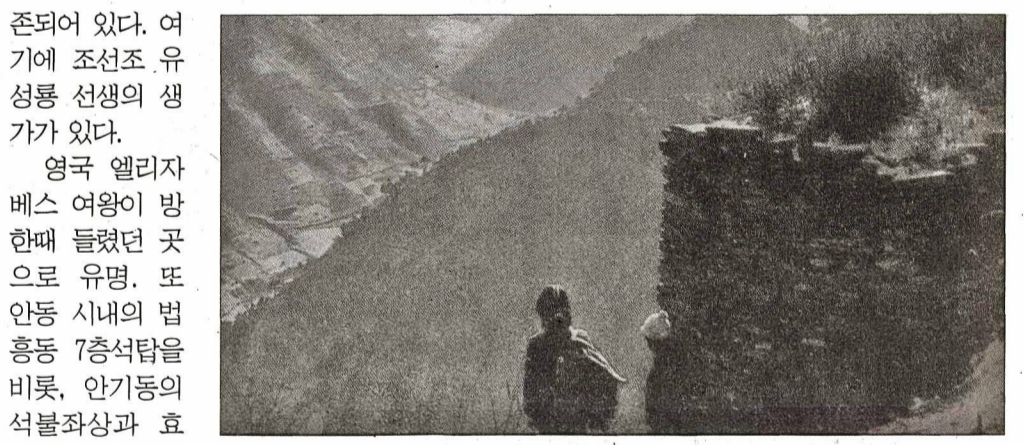
그런 어머님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지요."

어머님의 병세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 속으로 화장을 결정 짓고 있었다. 마땅히 모실 산도 없거니와 인연을 다한 육신이 대지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뜻을 거스려야 나 또한 언젠가 당신을 찾아 갈 때 남은 이들에 의해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으로 인연 다한 어머님 육신에 불을 넣었다. "어머니야, 불 들어가요."

어머님 고향은 함경도였다. 해방 몇 해 전에 남선평 서울에 계신 이종오빠집에 오고가다가 그냥 서울에 살게 되었다. 아버님은 충남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적 고향을 떠나 노동으로 조선팔도를 떠돌신 분이다. 한국전쟁 직전 두 분이 만났다. 힘든 시절, 갖은 고생을 모두 겪으신 분이다. 적빈하였다고나 부친의 부친 浮沈도 있긴 있었다. 남의 부러움을 받는 호사도 겪었지만 그 기간은 그 분들의 인생에 있어 지극히 짧았다. 아버님은 어머니보다 7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 분들의 살아온 얘기를 기록으로 남길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궁무진했을 당신들 시대의 이야기.

연극이 끝나서 무대의 막이 내려오듯 이승의 인연이 다해 서서히 잠기는 눈꺼풀 밖으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점차 가려지는 순간을 맞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속에 품었던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들려 주고, 문밖에 대기중이던 김순남과 함께 불꽃 먼길 떠날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라.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이들도 얼마나 많은가.

우란분절이 다가온다. 선망부모의 천도를 비는 날이다. 앞서 간 분들의 애뜻한 사연을 각박한 세월 탓에 잊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모처럼 그리움을 담아내는 날이다. 인연있었던 아니든 앞서 간 모든 이들의 천도를 빌어야 했다. 그 공력으로 살아 있는 모든 증생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 남한강을 끼고 있는 단양 영춘면의 '온달산성'

충주시내에서 서북쪽으로 37기리쯤 가면 충주제일의 유서깊은 명소 손꼽히는 탄금대가 있다. 탄금대는 원래 대문산으로 불리던 산으로 벼랑 아래로는 남한강과 달천강이 합류되는 곳이며 산세가 평탄하면서도 기암절벽에 우거진 숲이 장관을 이룬다.



▲ 안동 하회마을의 한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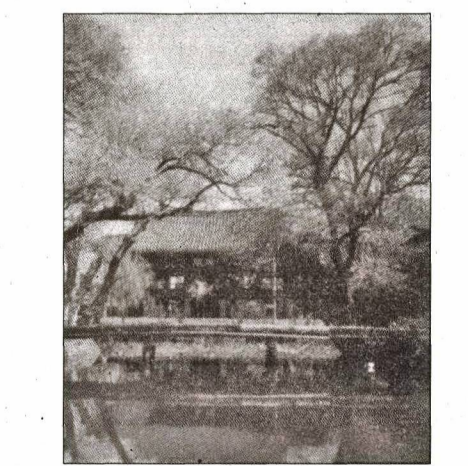
탄금대와 충주역

더 여행의 맛이 있을 것이다. 충주에는 그의 충주호, 월악산 등이 있다.

금오산과 구미역

소백산맥의 줄기로 해발 976미터에 이르는 금오산! 산은 낮지만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생각보다 접근하기 쉽고 산에 오르기도 편하여 초행자에게도 권하고 싶은 등산코스다. 구미역은 경부선으로 새마을호, 무궁화, 통일호 등 모든 열차편이 정차한다. 구미역에서 금오산 입구까지는 시내버스로 25분 정도 소요된다.

광안루와 남원역



▲ 광안루 누각과 연못은 세파에 찌든 심신을 잠시 풀어준다.

성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었던 광한루!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나아갈 방향 ④

자성학교운영 의사타진 필요, 전폭적인 지원 뒷받침돼야



지난호에서 자성학교설립에 대한 지역의 기초조사와 함께 전국 서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다시말해서 자성학교운영을 희망하는 사원이 있는지, 있다면 운영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설명회를 갖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존 자성학교의 장단점을 토대로 더 좋은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정보를 상호교환하여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운영방법과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하고 싶은 방안이다. 일과성의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가 아닌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청사진이 없으면, 21세기에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과 중대성 인식이라는 철저한 자각 위에서 '자성학교화살표를 위한 토론회'는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사원간 상호교환 형식의 법회나 합동법회를 주기적으로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를 기반으로 교구간 상호방문 법회나 합동법회를 통

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사원단위 자성학교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 또 매년 열리는 어린이·청소년 수련법회'를 일과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교구단위의 법회를 통해 자성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자성학교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갔을 때, 가능한 것이다. 자성학교 활동의 가운데 하나로서, 또 그 연장선에서 전국단위의 '수련법회'가 바람직한 것이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간에 사원단위의 자성학교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은 지도교사재용과 재정 부족에 있다. 자성학교와 관련된 모든 경비와 인력문제는 종단의 중앙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어린이·청소년포교 문제만큼은...

2000년대의 포교는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달려 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종단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

신행수기

쉽없이 정진하는 생활



국광사 정심화 보살

밀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약 사십 년 쯤, 막내 딸을 낳고 두 칠 쯤 지나서였다. 늦게 얻은 막둥이라서 그런지 산 후 고통이 심했다. 불이 날 것 같은 심한 두통과 등줄기는 따가우면서 당기고, 흐르는 식은 땀은 그칠 줄 몰랐다. 잠도 잘 오지 않는 데다가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낯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병원에 가니 병명은 신경성이라 하는데 치료를 받았지만 나에게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절에 가서 불공을 한 번 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보살님의 인도로 절에 따라 가게 된 것이 밀교에 입교

이 일어났다.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하던 두통도 사라지고 어지러운 증세도 말끔히 없어졌다. 부처님 은혜로 몸이 해탈되니 부처님 일 돕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서원하고 정진하면 정말이지 안 되는 일이 없었다. 정말 내가 부처가 된 기분이 들 정도이고 피곤하고 힘든 것도 몰랐으며 절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숭순수법했다. 또 대중 보살님들도 잘 따라주어 회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니 가정도 해탈이 잘 되고 서원당에도 날로 신교도가 입교되어 교화가 발전되었다.

병고 해탈을 위해 입교...

『심신수양』의 수행정진으로 변화

하게 된 까닭이다. 절에 가면서도 생사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준 명에 있겠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큰 위안을 삼았다. 몸도 잘 가누질 못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스승님으로부터 법을 받아 3차성 불공 중에 법문이 왔다. 스승님께서 불공 시차를 알리는 죽비를 치기만 하면 육자진인인 음마니반메움이 불덩어리로 보였다가 끝나는 죽비를 치면 보이지 않았다. 불공하는 것이 두렵고 속은 바짝바짝 탔다.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주셨으니 정신차려 용맹한 세우면 몸이 낫는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49일 불공에 들어가 거의 회향이 다 되어갈 무렵 어느날 꿈을 꾸었다. 정말 신기한 꿈이었다. 사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밤에 꾸 것처럼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다. 내가 사택에서 경전을 양손에 가득 들고 서원당에 들어가니, 스승님이 어떤 여자와 가사장삼을 만들고 계셨다. 그래서 나도 같이 도와 주고 있을 때, 다리를 절룩거리리는 낯선 남자가 저 쪽에서 나를 손짓하며 불렀다. 가기 싫다 해도 자꾸 오라해서 당황하여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전수님께서 화가 나 옆에 있던 돛 그릇을 그 남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빨이 부러지고 얼굴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남자는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날 아침, 거짓말 같은 일

총지종이 참종됨에 따라 원정님과 복지와 스승님만 믿고 뜻있는 보살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 국광사가 있게 된 동기이다. 그러나 존경하던 안인정 전수님의 해어짐은 전수님의 가슴을 도려낸 것 같은 아픔을 드린 것이 지금도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 점은 전수님께 항상 죄송스럽다. 참종 신도가 된 것과 준제 전언법으로 열송한다는 것이 내 생애에 일대 전환이 되어 너무나 기쁘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말씀하신 것만 행했고 행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고회를 훌쩍 넘긴 나이로 이 글을 쓰다보니 한 평생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종령님과 스승님을 비롯하여 우리 형제지매인 총지종 보살님들에게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전생에서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이 있었는지 우리 가족은 예능방면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막내 딸 순지는 성악을 전공하여 사원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와중에 부족하나마 첫 음반을 내어 찬불가 포교에 정진하고 있으며, 두 손녀 딸도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음악과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 이것은 다 부처님의 큰 은혜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 밀교는 무엇이든 잘 안 될 때는 내 마음 찾고 참회하고 깨치는데 서원이 성취가 된다. 마지막 남은 여성에는 사대 은혜 갖기를 서원하고 전생에 지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오늘도 쉽없이 정진하고 있다.

불교수행이야기

존경발던 행자승, 비구승 되어 쫓겨나다

김홍배 (법정원)



옛날 중국에 수행 잘하고 윗사람 공경을 잘하는 행자승 한 명이 있었다. 그는 다른 행자승이나 비구승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는 '윗사람을 공경할 줄도 알았고 신도들에게는 항상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어느 누구를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는 경우가 없었다. 자연히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행자이지만 큰스님 보다 더 공경받았다. 세월은 흘러 그 행자승이 모든 수련과 정을 마치고 비구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사찰의 중심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신도들은 줄어들고 분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이에 다른 많은 스님들이 걱정하였다. '한때는 많은 존경을 받아 신도를 몰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와는 도리어 그로인해 분란이 끊이지 않으니 큰일이다.'

그 행자승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일어나게 된 사연은 이러했다. 행자로서 묵묵히 수행에 전념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던 심성은 어느덧 아상으로 변했고, 깍듯하였던 예의는 변하여 어느날부터 신도를 위에 군림하기에 이르렀고, 좋아하지 않는 신도나 스님들을 차별까지 하였다. 나

이가 많은 적든 신도들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니, 신도들은 "아무리 삼보를 공경하라 하지만, 저런 무례하고 스님갈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 신도들의 원성은 높아 갔고, 급기야는 주지스님이 그 비구승을 부르기에 이르렀다. "아무래도 자네가 이 절을 떠나는게 좋을 것 같네.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분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했다. 이에 그 비구승은 "내가 왜 나가야 합니까. 신도들이 비난하는 것은 자기들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나를 시기질투하여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는 신도가 무슨 불제자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나갑니다." 그 비구승의 저항은 완강했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그 비구승을 절박으로 내쫓아 버렸다. 본인에게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심할 줄 모르고 신도나 모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생구제의 사명감도 삼보의 자경도 없고 스님으로서 공경받을 가치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주지스님도 스스로 물러났다. 제자를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종조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스승의 사명과 자세'를 되새기게 된다.

건강상식

손발저림증

김내과의원 원장 김옥희



외래 진료중 흔히 접하게 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손발 저림이다. '손발이 얼음처럼 차다', '날의 살처럼 느껴진다', '바늘로 수시듯 찌릿찌릿하다' 등으로 표현한다. 유독 우리 나라에서는 손발저림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혈액순환 장애로 생각하고 값비싼 뇌혈관 순환제나 한약을 복용하거나 침을 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혈액순환 장애로 저림증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손발저림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말초신경질환과 비말초신경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

말초신경질환의 가장 흔한 예로 손목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 손저림이 나타나는 손목터널증후군이 있다.

직업적으로 손과 손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잘 생긴다. 당뇨병에 의한 말초신경손상은 손과 발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만성신부전증에서도 요독에 의한 신경손상을 보인

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비타민 결핍으로 손발저림이 수반된다. 그 외에도 갑상선질환, 중금속중독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말초신경질환으로는 목 디스크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손바닥과 손등의 저림이 심하다. 뇌시상하부 출혈이나 뇌경색이 있을 때 손발저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각장애나 근력약화로 진행될 수 있다.

병적인 손발저림 외에도 히스테리 증상이나 불안증 환자에서도 손발저림은 흔히 나타난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증상차이가 심하고 근력변화가 없으며 기분이 좋아지면 손발저림은 저절로 좋아진다.

손발저림은 이와같이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혼자서 자가진단하여 필요없는 약물을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김내과의원 (053)792-5115

광고접수 (02)508-8933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lotus flower and text: '2006년이면 100년 [참사람 열린 교육]의 도량, 동국대가 새로운 100년을 엽니다!' and '세찬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장명등(長明燈)의 정신으로 한세기를 엮어온 동국대학교 - 새시대를 밝힐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은 등불입니다. 사람은 등불입니다.' The Dongguk University logo and name are also present.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lotus flower and text: '2006년이면 100년 [참사람 열린 교육]의 도량, 동국대가 새로운 100년을 엽니다!' and '세찬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장명등(長明燈)의 정신으로 한세기를 엮어온 동국대학교 - 새시대를 밝힐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은 등불입니다. 사람은 등불입니다.' The Dongguk University logo and name are also present.

인물탐방

종단의 복지사업 전문화, 체계화를 위한 첫걸음

불교총지중사회복지법인 이사장 효강 대종사

이번에 설립인가를 받은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효강 대종사를 만나 복지법인 설립과정과 사업 계획에 대해 고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 효강 이사장은 종도들의 큰 관심과 후원을 강조하였다.

법인설립까지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종단이 복지법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3년 전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사회 복지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우리 종단이 전담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종단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꾸준히 해왔지만 이를 더욱 극대화하고 지속적이며 더욱 전문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지난해 8월 승단총회에서 복지법인설립을 발의하게 되었죠. 승인을 얻는데 근 1년이 걸렸습니다. 행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데 까다롭기는 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복지법인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생각입니까?

그간 종단의 재단법인 불교총지중유지재단 사무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복지관련사업을 복지법인 사무국에서 전담토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또 사무국에서 복지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에는 강남구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와 무의탁노인·실직자 무료급식, 청소년보호 등 그간의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또 종단 산하의 전구 사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생각입니다.

불교 종단으로는 3번째 복지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여타 다른 복지법인이나 단체와 달리 중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분단된 남북간의 이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의 갈등이 문제를 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서독이 통일 전에 왕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의

갈등과 후유증은 상상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래가 없는 우리 남북간의 사정을 고려해 통일 이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우선 탈북자를 지원하는 문제부터 다루어아하리라 봅니다. 정신적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일 이후 남북간 이질감 해소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들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 사회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체로 사회복지라고 하면, 소득의 재분배, 물질적 후원 또는 공적인 부조를 떠올리게 됩니다. 경쟁사회에서 부득이하게 나뉘어 수 밖에 없는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 모두가 정신적 공동체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이 불국정토요, 불국정토가 곧 복지사회라고 봅니다.

승단이나 종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다면?

종도들의 더욱더 큰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산발적으로 여타 단체나 시설에 사원단위 또는 개인적으로 후원해오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종단에서 설립한 복지법인에 더 많은 지원과 후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종단의 복지법인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btn 소식

프로그램 부분 개편, 3개 프로 신설

불교TV(사장 허문도)는 6월 28일부터 '입시생을 위한 참선지도' '해원스님의 선체조' '사찰통신' 등 8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부분개편을 단행했다.

'입시생을 위한 참선지도' (월~토, 오전 6시45분~오전6시55분)는 다양한 참선 내용과 지도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해원스님의 선체조' (월~토, 오전6시55~오전7시15분)는 실생활에서 간단히 응용할 수 있는 선체조를 소개하고, '사찰통신' (월~토, 오전8시15분~오전8시25분)은 종단이나 사찰 소식 등을 음악영상과 함께 전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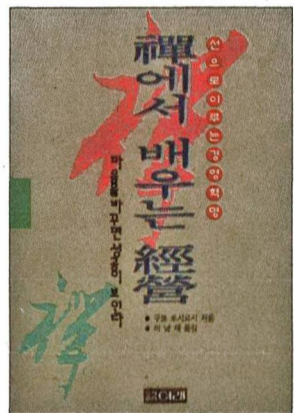
BBS 소식

'발전연구기획단' 발족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2천년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 '불교방송 발전연구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그간 활동을 통해 방송제작 및 기술, 재정 확충 및 사업, 후원회 활성화, 방송 포교, 광고유치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간 안내

『선(禪)에서 배우는 經營』



저자가 80년대 말 불경기로 고전하던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강의 정리하였던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것을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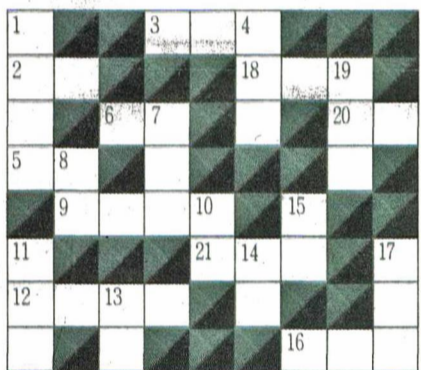
불교종단협의회 총무과장을 역임했던 이남재씨가 일본 유학 중에 번역했다. 이 책은 종교가 지닌 윤리나 이론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수행과정에서 깨닫는 마음의 평온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에 근거한 포용적인 자세, 즉 '무경계(無境界)의 발상' 이야말로 새로운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출판 여래권, 가격 5,000원.

◆ 지난호 총지퍼즐 정답자

• 박미영 (경북 포항 창포동 618-9)

총지 퍼즐마당



가로글씨

2)집 뜰에 편편하게 닦아 놓은 빈터. 뜰. 3)고대 인도의 우주설로 세계의 한 가운데에 높이 솟아있다고 하는산. 모고산, 묘광산. 5)사마천이 쓴 역사책. 6)꽃이 떨어짐. 9)음력 7월 15일. 목련 존자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사대부중에게 공양하는 것이 시초. 12)바

다에 나는 장어. 16)***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 불교 문화. 8월 29일까지 서울에서 이 미술이 전시된다. 18)신라 사람이 당나라에 세운 절. 20)풍, 오줌과 섞은 동식물 따위를 섞힌 것. 식물이나 땅에 영양을 주는 것. 비료. 21)서울과 부산을 운행하는 복선 철도.

세로글씨

1)부처님의 속세 제자. 보살행업을 닦은 거사로 그 수행이 대단하였다. 4)절에 있는 산신을 모신 집. 7)보배의 그릇.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넣어 두면 자꾸 생겨 아무리 써도 줄지 아니함. 10)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경치. 비경. 11)부처님의 10대 제자. 지계제일. 13)꿩의 수컷+까투리. 14)손으로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대나무살에 종이나 형질을 발라서 만든. 15)조용히

앉아서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집중하여 무상무념의 상태로 들어가는 수행. 17)부처님의 아들. 10대 제자. 밀행제일. 19)먼거리, ←근거리.

▼ 지난호 총지퍼즐 정답



※ 8월 31일까지 총지중보 퍼즐마당 담당자 앞으로 관제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중보법정원내 총지중보사

전시의 장

초원의 대서사시... 대자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몽골의 유목문화 속으로...

몽골 유목 문화대전

몽골 유목생활 유물전시 및 체험, 영화상영 등 각종 행사 열려



▲ 울스글(사면의상)-천조각으로 엮은 끈 형태의 장식과 동경 등이 달려 있는 사면 복식(몽골 울스박물관 소장)

개관 3주년을 맞는 경기도박물관이 한국, 몽골, 일본을 잇는 삼국간 국제교류의 자리를 마련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새천년을 맞아 아시아의 중심에서 대륙을 건설할 수 있었던 몽골민족의 생활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더불어 우리의 관심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전시회의 의의를 두고 있다. 몽골은 우리 민족의 이동루트와 닿아있는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사돈의 나라', '형제의 나라' 그리고 '솔롱고스'(해뜨는 무지개 나라 사람)라고 부른다. 인종학적으로 또 언어학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지 곤지, 제기차기, 씨름, 무당, 돌서낭, 돌하르방, 담배대, 찜지 같은 놀이, 신앙, 생활 용구 등 크고 작은 생활모습에서 많이 닮았다.

이번 전시회는 몽골 문교부와 일본 국립민족박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 전시기법면에서 단순히 보는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타민족의 생활문화를 직접 접하면서 우리 문화의 관련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 및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첨단 정보전시를 활용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게 한다.

전시내용은 몽골민족의 기층문화를 살필 수 있는 유목생활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몽골의 3개 박물관과 일본 국립민족박물관 그리고 국내의 강원대학교박물관, 권영순 초대 몽골대사의 소장품 등 대여유물 500여점과 기타 보조 전시물로 꾸며졌다. 특히 몽골 유목민의 가옥인 게르(Ger)를 설치하여 관람객이 천막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몽골 전통의상 입고 사진찍기', '몽골 악기연주', '말뚝잡기' 등의 체험형 전시도 준비되었다. 전시기간은 6월 22일~8월 22일. 장소는 경기도박물관(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0331-285-2011~4)

앞으로 남은 체험행사 및 각종 기념행사는 '우리 장승만들기와 몽골 오보축제'(7.24. 토. 오후4시~6시), '해설이 있는 음악회'(7.24. 토. 오후5시~7시), '몽골로 가는 테마여행'(8.7. 토. 오후2시~6시), '관람객 70만 돌파기념행사(입장객 70만 돌파일에 입장하는 몽골반점이 있는 단순히 보는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타민족의 생활문화를 직접 접하면서 우리 문화의 관련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 및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첨단 정보전시를 활용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게 한다.

이번호에는 국공사 주교 법성 정사님의 기사제보 도움이 컸습니다. 『신행수기』, 『홍순씨씨 찬불가 CD』 취재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재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과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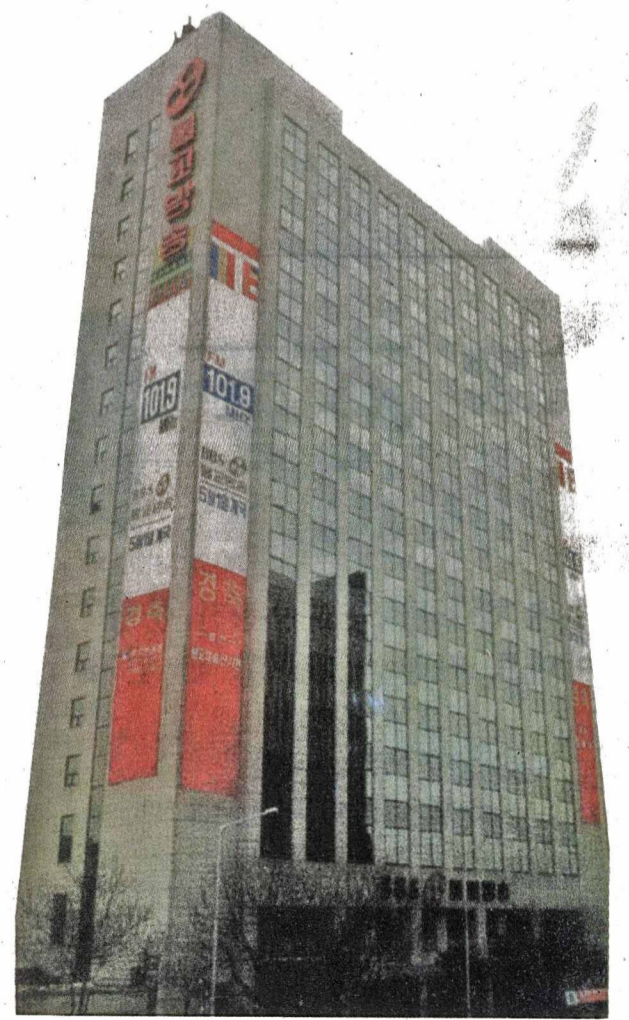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89.9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 대표전화 : (02)705-5114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 (02)705-5560~1
☎ FAX : (02)705-5229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